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 三三一五八 三三一四八
月定購讀料 貳百圓

任長官의 演說問題化
叛族處斷에 愼重
多數修正案採擇·今日은 休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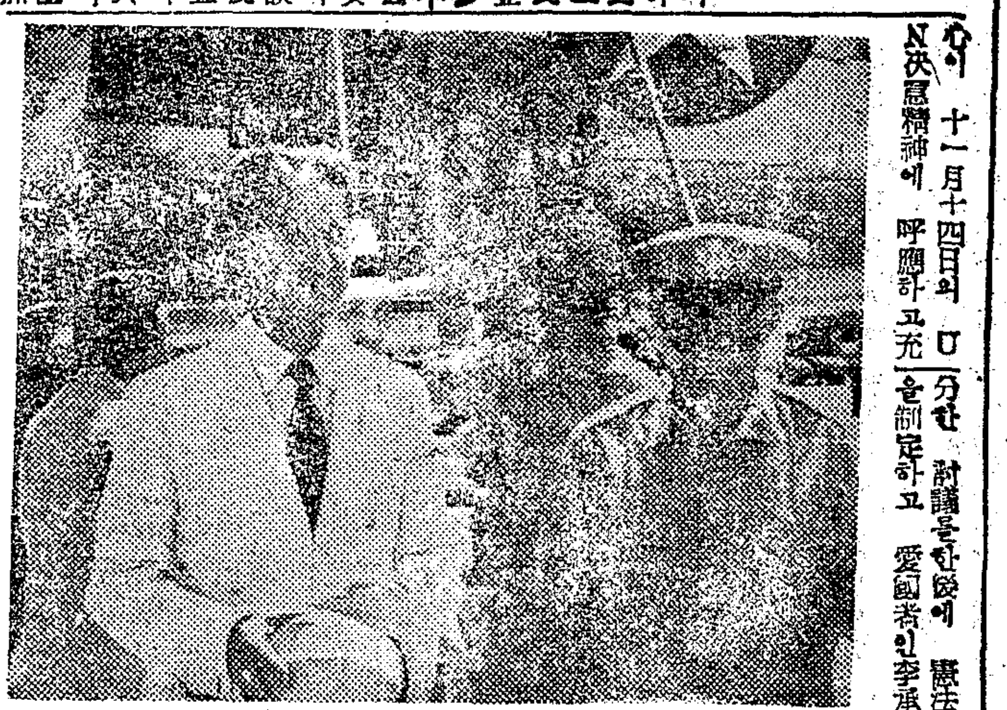
國會 四七次會議

國會四十七次本會議는 二十三日午前九時半 申議長司會로 開會 議案審議에 앞서 美國駐南韓大使의 資格으로 來朝中인「무초」氏가 二十三日下午二時半金浦空港着入京豫定임으로 議長이 出迎하게 되었다는 報告가 있었다 白寬洙議員의 交涉通信連絡의 臨時委員會는 이에 該當한 各常任分科委員會가 構成되었으니 廢止하자는 動議를 可決通過한後 金仁湜議員으로부터 지난二十一日 任永信女史가 國會에서 行한 演說은 國會를 無視하는 同時에 政府內의 親日分子를 擁護하기 爲하야 UN에서의 獨立承認을 憑藉하는 것은 到底히 默過할 수 없는 言辭라는 發言과 政府內親日分子調査結果에 對한 別項과 같은 報告가 있었다 이어 反民族行爲處罰法을 上程第二讀會를 開始하게 되었는데 李恒發議員이 二十四日까지 休會하고 修正提案者와 特別法起草委員이 連席하야 合同修正案을 提出케하자고 動議하여 이를 採擇 可決한後 十一時十分休會하였다

美大統領特使空路到着
民主確立을 援助
「무쵸」氏昨日入京第一聲

「트루만」美大統領特使로서 大韓民國美國特使外交代表로 赴任하는「존J·무쵸」氏는 그동안 東京에 滯留中이든바 二十三日下午二時半 金浦飛行場에 到着하였는데 李國務總理 張外務長官 金東成公報處長等과 過政要人「하-지」中將以下美軍要人諸氏가 出迎하였다 그리고「무쵸」氏는 大使資格을 가진 韓國에 있어 美國務省의 最高代表이며 앞으로 行政權委讓에 關한 韓美會談의 首席代表에 就任할 것이라 한다 氏는 暫時休憩한後 來朝所感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美國大統領特別使節로서 韓國人民이 獨立을 實現하는 이 幸福스러운 瞬間에 到着한 것을 大端히 滿足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美國人民의 好意는 韓國人民의 獨立에 對한 不屈의 決意와 步調를 같이하여 왔읍니다 不幸이 도 지나간 三年間의 獨立過程은 不可能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은 韓國人民이나 眞實한 友邦國民의 過誤는 아니였읍니다 美國人民들은 韓國人有權者가 五十選擧에 있어서 九割이나 投票하였다는 것을 듣고 大端히 感激하였읍니다 그리고 自由롭게 選出된 韓國民의 代表들이 그렇게도 熱心히 十一月十四日의 UN決議精神에 呼應하고 充分한 討議를 한後에 憲法을 制定하고 愛國者인 李承晩博士가 領導하는 政府를 樹立한 것을 매우 滿足히 생각합니다 本官은 國聯朝鮮委員團과 協議하여 昨年十一月十四日의 UN決議를 더욱 實行하는데 關하야 이 獨立한 民主國家에 必要한 基礎를 確立하는 것을 援助하자는 美國民의 好意를 表明하기 爲하야 大韓民國과 交涉할 것이외다 韓國은 遲滯없이 外國의 干涉을 받지 않고 UN加盟國의 資格이 있는 自主統一國家를 達成하리라고 確信합니다



(金浦到着의 무特使와 出迎하는 하中將)

朝委中國代表 金博士가 招請

金奎植博士는 二十三日下午六時半부터 三淸莊으로 劉어萬以下UN朝委中國代表團을 招請코 칵텔·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對蘇態度決定
決定的會談開催乎
莫府交涉

【모스코바二十三日發UP朝通】「스미스」駐蘇美國大使는 二十二日 英佛大使와 二時間에 걸쳐 協議하였는데 그들은「모로토프」蘇聯外相과의 決定的인 第二次會談을 進行하는데 있어서의 準備를 完了한 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今番會談은 三時四十分間이나 繼續한 前番會談이 있은지 一週日後인 廿三日에나 實現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選擧消息
南韓人大會開催
洪命憙氏가 司會

二十二日밤 平壤放送에 依하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代議員 選擧를 爲한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가 二十一日正午부터 海州市에서 開會되였다고 한다 同放送은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의 光景을 다음과 같이 報道하였다 이大會에는 特히 濟州道人民代表로 人民抗爭을 總指揮한 金달삼氏도 出席하였으며 朴憲永, 洪命憙氏와 金奎植氏도 參席하였다 朴憲永氏의 開會宣言에 이어 主席團으로 許憲, 朴憲永, 洪命憙, 李英, 李克魯, 姜舜氏等 南朝鮮各政黨代表를 爲始하야 勞働者, 農民, 女性, 文化人, 無所屬人士等各界各層代表者들과 濟州道人民抗爭의 指導者等 三十五名을 推戴하였다(朝通提供)

國會를 侮辱
任長官演說을
金仁湜氏反駁

國會散會後 金仁湜議員은 記者團과 會見하야 過般 第四十六次會議에서 任永信女史가 外交報告演說로 現在國聯總會承認時까지 政府의 無條件支持를 要請한데 對하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任女史의 報告는 오히려 우리國會員에게 侮辱을 준것이다 任女史는 個人資格으로 報告演說을 하였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 性質에 있어서 政府의 代辯이 아닌가 疑問하는 바다 그런 點으로 보아 到底히 默過할 수가 없다 지난四十四次會議에서 百三十對零이라는 絶對多數로서 新政府內親日派肅淸이 可決되었거니와 우리로서는 하로바삐 이러한 不純分子를 肅淸하야 韓人이 모다 信任支持할만한 政府를 樹立하야 UN에서도 承認받도록 政府의 도음이 되고자 國會議員은 案을 可決하였든 것이다」

政府要人罪狀
金仁湜氏調合書

政府內 親日分子驅逐을 爲한 材料蒐集을 委任받은 金仁湜議員은 國會第四十七次會議席上에서 廿一日 任永信商工長官이 國會에서 演說한 發言을 別項과 같이 糾彈하는 同時에 材料蒐集에 對하야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그리고 建議文은 이미 蒐集된 商工次官 交通部長官 法制處長에 限하야 廿三日中으로 大統領에게 提出하리라 한다

親日材料內容

▼任商工次官=日帝下에서 龍仁郡守 總督府事務官 道鑛工部長을 歷任하였는데 鑛工部長在任時 日本의 徵用政策에 가장 忠誠을 다하였음 以上事實을 證明하는 龍仁郡民一同의 陳情書가 有함

▼兪法制處長=日本東京에서 開催된 大東亞文學者大會朝鮮代表로써 參席하야 日本精神을 大東亞精神으로써 全世界의 文化向上을 促進시키자는「要言」을 비롯하야 國民文化評論其他數十餘雜誌等에 寄稿한 中에는 皇民化를 鼓吹하는 內容이 無數한 것

▼閔交通長官=校洞國民學校에서 開催된 皇國臣民推進大會開催時에 朝鮮文化를 擁護하라는 同胞를 日本官憲에 密告하여 逮捕케 한 것

處罰範圍擴大
修正動議21件骨子

反民族行爲處罰法案을 審議中인 國會는 昨二十三日 第四十七次會議에서 第二讀會로 드러갔으나 草案各項에 對한 多數議員의 修正動議가 提出되어 이를 整理하기 爲하야 今廿四日을 休會하게 되었는데 議事局에 提出된 修正動議案은 二十一件의 多數에 達하고 있다 修正動議의 內容은 原案에 比하야 處罰範圍가 擴大된 것과 刑期가 若干延長된 것으로 特히 重要한 修正案內容을 窺視하면 다음과 같다

▼第四條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一切公職으로부터 追放할 것」外에 第三項 勅任官以上을『高等官以上의 官吏되었든 者』또는『勳五等以上의 官吏되었든 者』『奏任官以上의 官吏되었든 者』等으로 修正하자는 三者의 案과『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組織된 中央團體의 幹部 首腦者』及『大規模의 軍需工業經營責任者』를 挿入 追加하자는 案이 있으며 同條第六項을 全部削除하고『憲兵, 憲兵補, 警部補및 駐在所首席警官』까지 適用하자는 修正案이 가장 눈에 띄우고 있다 그리고 犯罪者의 改悛을 參酌하야 輕減 또는 免除하기로 된 第五條의 全部削除와 第七條에『本法에 規定한 犯罪를 行한 者를 保護하기 爲하야 逃避, 財産隱匿 證據湮滅을 幇助한 者는 그 犯罪와 同히 處罰한다』를 追加하자는 修正案도 있는바 以上의 修正案이 如何히 論議採擇될 것인가 注目된다 此等修正案에 動議한 議員들은 逐條討議에 이르기까지 今廿四日午前十時에 特別委員들과 連席會議를 하기로 되었다

八面鋒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린줄 압니까 漢江水보다 더 많을거야요…하면 어쩌지 어떠한 것이 各國의 同情을 얻기 爲한 民主議院代表 任女史의 外交活動報告演說의 一句다▲예로부터 女人은 눈물이 많다는데 게다가 悲慘한 祖國의 實情을 呼訴함에 어찌 눈물이 없었으랴▲그 눈물이 설마 漢江水보다야…하고보니 誇張치고는 어지간한 誇張이 아닌가▲白髮三千丈이란 誇張도 있다해서 女史의 이 誇張을 그냥 修辭로 돌어넘기기에는 任務가 民族問題를 걸머진 外交요▲演說場所가 원만한 자리가 아니라 史的으로 記錄이 남은 議政壇上이다▲수판을 놓고 따져야하는 外交가 눈물만으로 解決될 법도 없거니와 또 다 信用해도 눈물 든 수고를 다 信用해도 눈물의 分量만은 割引이 不得已。

人事往來

▼吉貞姬氏(醫師) 市內中區草洞六〇의一〇으로 移轉 人事次來社(電話本局四〇六〇番)

政黨人에게 바람 (二)
朴烈

二、立黨의 條件

如斯히 볼때 祖國에 있어서의 政黨濫立은 그 數에 있어서는 그다지 問題가 될 것이 아니고 問題는 그 質에 있는 것이다 民主政治下에 政黨이 생긴 일은 必然的이라는 것은 前述한 바이나 그 政黨이 不完全한 態勢로서 無數히 存在하면 國民은 政治的意見을 어느 黨에게 求하고 어느 黨으로서 代議케 할 것인가 그 去就를 判斷키 困難할 것이며 國民은 民主政治에 緊要하게 될 것이다

그런 故로 政黨은 그 設立 그 活動 그 組織에 있어서 民主主義政治의 確立에 足한 要素를 黨 그 속에 包含하고 黨의 活動에서 發展시키며 黨 그 自體의 組織속에 確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러면 바른 政黨의 姿態란 것은 어떠한 것일가? 그리고 어떠한 黨의 活動이 朝鮮을 救해낼 黨的資格을 가진 것이 될 것인가?

政黨은 무엇보다도

一、國民的 思想의 結合에서 出發하고 黨의 政策, 政綱에 依해서 活動方向을 決하여 黨勢를 擴充하고 政府를 左右하는 것임으로 먼저 思想的 立場을 宣明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야 同志的 結合에서 發足하야 次次 同志的 結合體로 組織擴大함으로써 發展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二、黨은 그 組織으로서의 基盤을 分明히 가지고 그 基盤에 立脚하여 國民的 民族的 至高의 利益을 잃지 않는 것이 絶對의 要諦인 것이다 그 일은 國民의 한 사람이 主體的으로 分明한 性格을 確立하야 그 우에 또 한 사람이 協力하고 새로 또 다른 한 사람이 黨의 存立의 基盤을 明確히 가지고 그 우에 생기는 組織活動이 必要한 것이다 萬若 黨의 主體性을 明確히 하지 않은 黨이 있다고 하면 이는 全然히 政治勢力에 追隨하며 勢力을 쪼차 彷徨하는 無賴의 徒黨化하고 말것이다

三、黨의 主體性을 明確히 하고 그 活動方向을 恒常 硏究하며 黨의 指向을 그릇치지 않기 爲하야서는 黨調査機關이 必要한 것이다 今日의 民主的 政黨은 一國民이 그렇지 못함과 가치 政治的一般 輕擧盲動함은 容許되지 않는 것이며 充分한 調査와 硏究의 成果로서 科學的인 正確함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四、따라서 黨의 機動性인 것이다 或은 또 黨의 動員力인 것이다 黨이 한 行動을 이르키게 될 때 有力한 基盤이 되는 것은 訓練한 組織力인데 이 組織은 平素엔 柔軟性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偉大한 힘을 發揮하고 平常時는 沈默하고 오즉 組織强化라는 지루한 勤에 終始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한번 有事하여 發하는 機動力은 平時의 透徹한 意見이 下部組織에까지 徹底하야 黨의 生命을 賭하여 싸울 것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黨員은 結束치 않으면 안될 것인가를 自覺하도록 하는 訓練은 絶對로 必要하다 이 訓練 없이는 黨의 黨員은 不可能한 것이다 더욱이 國民인 黨員이 自發하야 거기에 應하도록 組織化된 그 組織은 此訓練과 交互作用을 하여야 할 것이다

五、黨活動은 理論이 아니고 實踐인 것이나 一에도 二에도 實踐을 通하여서만 黨의 面目은 發揮할 수 있는 것이나 此實踐의 基礎가 되는 것은 大端히 迂遠한 것 같으나 黨의 文化工作의 徹底한 것이다 이 文化工作이 한 한개의 思想運動의 展開이기도 하나 事實은 黨勢의 擴張이고 二는 一般國民에게 對한 黨約束의 履行을 完全히 하는 일이며 三은 國民生活面에 直接寄與하는 일이다 이것은 大體로 黨의 實踐部面이나 黨이 어디까지 國民의 것이며 國民에게서 推存된 以上 黨은 國民生活에 奉仕할 義務가 必要되는 것이다 黨은 公器이다 公黨은 恒常 그 支持者에게 奉仕해서 하는 것이 無形의 義務이다

如斯히 要約되는 좋은 政黨의 立黨條件은 黨의 政策政綱이고 一言으로 말하면 黨의 政治經綸인 것이다 그래서 이 經綸을 定하는 것은 同志的 結合에서 생기는 思想이 根本이요 思想없는 政黨은 無根草이요 朝三暮四의 無定見派이다 그때 그때에 따라 變動하는 政黨은 國民民族을 富裕케 못하는 것이다 그런 故로 政黨의 基本性格은 明確할 뿐 아니라 이 性格을 中心으로 國民政治力의 結集이 行하여져야만 될 것이다 萬若 이러한 努力을 怠慢히 하는 政黨이 黨이라고 行勢하고 國民的 信賴를 基礎로 하여 存在한다고 錯覺한다면 反對로 그 政黨은 가장 猛烈한 惡作用을 國民에게 끼치고 있는 것이다 스사로 豪言壯談하는 말치 國民도 庶黨한 宣傳과 威壓에 必히 疑惑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에스·아·보리브손敎授著
新婦人論
申允善譯
—上質紙·插畫豊富 全六頁 本文142頁·240圓 送料20圓—
社會의進化와 모든發展이 婦人問題의解決과함께 이루어진다는것은 다시 무를것도없다。敎授의 本書는 現代에 立脚하여 將來할社會生活의變革에까지 豫見을 주고있다는데 다른古典書와도 또한층 色다른点이 있다。
서울市中區茶洞五三番地
新學社
電話本局5659番

獨逸語敎材出來!!
成均館大學文科科長 金晋燮編著
文法兼修 初級獨逸語敎本
四六豪華版128頁高級更紙使用 값180圓
가르키는사람으로서의 著者가 獨語初步者를 爲하여가장 理想的으로 編纂한것으로 高級中學은勿論專門大學의 敎材로서 最適임을確信한다
部數豫約하신분에게는 入金即時로 速達送付하겠음
서울市書珠洞45의2 宣文社發行
電光4325番 振替京城9409番

新學期社會生活科敎科書
豫約注文拜受
國立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敎授 金鍾武著
새로운 목거리 이웃나라생활(역사)
中學一年用으로 內容은 새롭고알기쉽고 자미있고 그림도 많음
菊版마카오紙使用
九月初旬配本
發行所 서울市西大門區忠正路三街三九八 文榮社出版部
電話光化門(3)791番 2367番

中學講義錄
希望에 싸인 젊은 男女들이여! 中學校에 못가는 것을 슬퍼 말라。이 講義錄으로 공부하면 家庭에서도 中學을 卒業하고、또、大學에도 進學할수있다。
入學案內(十圓郵票封入) 또는 直接 本部로 來訪 請求
東興中學 通信學部改稱
서울市太平路一街六一(朝鮮日報뒤)
中央通信中學校

柔하고도 光彩있는 色硝子製造專門
紅、黃、靑、綠、白等各色(各種製品보다好評)
高麗硝子工業所
서울市中區 支店一番地(中央劇場앞)
電本(2)一三二四番

圖書出刊案內
우리史學界에 最高權威이신 李丙燾先生께서 心汗을 기우려 四十年間研究에 研究를 써서 지여내신 名書입니다
總說로 시작해 上代史、中世史、近世史로 나누어 歷代王室系譜로 맺었음니다
◎새歷史研究의 寶鑑、待望의 巨書
國立서울大學校敎授 李丙燾先生著
朝鮮史大觀
菊版五百餘頁 最高級紙使用 값一、〇〇〇圓

青陽 曹正煥先生著
戰後의 日本
菊版二八〇頁 高級紙印刷鮮明 값四〇〇圓
著者 青陽先生은 解放直後初代駐日外務官長으로서 在日同胞國籍問題、民權擁護、同胞對日人의 感情緩和等 重大問題를 圓滿히 處理하신 우리나라 外交의 重鎭이다 先生이 駐日中戰後日本의 動向을 各角度로 冷靜且正確히 觀察하여 日本現實을 三千萬同胞에게 알리고 저 心魂을 기우려 著述하신 戰後日本에 關한 最初의 快著이다 自稱 또 無論하고 解放後第一공금한것이 日本의 動向인만큼 讀者는 本書에서 많은 興味와 示唆와 그리고 日本研究의 좋은 材料를 얻을 것이다

師範大學敎授 李能植先生著
近代史觀研究
上質更紙使用·四六版 頒價一五〇圓

師範大學敎授 李能植先生著
西洋文化史
上質更紙使用·四六版 頒價一五〇圓

서울大學敎授 朴鍾鴻先生著
一般論理學
高級紙使用·菊版·값三五〇圓

法大敎授 鄭寅諾 高大敎授 趙璣濬 先生共著
獨逸語讀本
高級紙使用·四六版·값二三〇圓

高大敎授 趙璣濬先生著
獨逸語文法
高級紙使用·四六版·값四〇〇圓

서울大學敎授 韓南龜先生著
햇세의 두 短篇
高級紙使用·四六版·값二五〇圓

서울市中區太平路二街七三
同志社
電話本局(2)二六五〇番

親日官吏肅淸에垂範 正氣昇揚을協助
嚴祥燮氏等八檢事率先退陣

방금국회에서는「반민족행위처벌안」이 제二독회로들어가 진지한토의가계속중에있으며 이에앞서또의원들은현정부고관중에태연히 부일협력자가 자리를차지하고있다고하야 이들을처단하여야할것을 고창하야 민족정의의소재를분명히한바있어 행정부문각기관 현관리들에게까지큰파문을던지고있는데 현재검찰청내의 중견층으로지목되며 일반에대한호흡이비교적좋다고보는 대검찰청의엄상섭(嚴祥燮)검사를비롯한 八명의검사들은일제하의 검사로써해방후다시 미군정하에검사로 미군정에 협력하야 지금에 이르렀는데 신정부가수립되고 검찰진영의 유능한 인재가 배출된 이마당에 임하야 민족정기가 고창되고있는현하 몃몃채못하다고 생각할뿐더러 인심의쇄신과 민족정기앙양에 협조할필요가있다고하야 사관원(辭官願)을 작二十三일 이인(李仁)법무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한다 이들검찰관은 군정하는물론일제하에서도 명검사로 그의용명을날리던 인물들이였던바 금번국회에서 통과되려는 반민족행위자처단법에 해당하는 부일협력자에 포함되지나않나하야 스사로사표를 제출함에이르른것이다 이로말미암아 그러치않어도 세인의억측이분분한 검찰청내에던진 파문도크려니와 정부 각기관에내재한일제시의 고등관리들에게반성의좋적을주는동시에 산모범을보였다고일반은말하고있다 이번사직원을제출한八명의검사는다음과같다

△大檢察廳檢事 嚴祥燮 △同 李호 △高等檢察廳檢事 李宗根 △同 李炳瑢 △地方檢察廳檢事 金潤鎬 △同 金壽在 △同 申彦瀚 △同 鄭顯模

景武臺官邸로 李大統領移轉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은 二十二일 이화장으로부터 경무대(景武臺)관저로 이전하였다

罹災民住宅建設 補助金各郡割當

지난번수해로인한 리재민을구호코저 전남도후생국에서는 이지음가옥五천十四호를 건설하기위하야 보조금六천七백七十六만五천원을 각부군에할당하야 十월말일까지 준공식할터이라고한다(光州合同)

漢藥中學院昇格

서울시삼각동(三角洞)에있던 한약(漢藥)중학원은 작년七월에 마장동(馬場洞)으로 교사를이전하였었는데 지난十四일고급중학으로승격인가되여 종합중학으로 신발족케되였다한다

八議員俎上에
選擧訴請審議結果가注目

과정대법원 김용무(金用茂)씨를 위원장으로하고 대법관四인을위원으로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소청위원회에서는 그간 소청된十二건중 四건을리유불충분으로 각하하고남어지八건에대하야 심의를계속중이든바 지난十七일까지는피의자심문과증인심문을一단마치고二十二일부터는김용무(論山·密陽) 김찬영(金찬泳=甜里·釜山) 양대경(梁大卿=釜山) 서순영(徐淳泳=榮山浦·海西)외제씨가 각지방에출장하야 현지조사를시행한다음 二十九일까지 귀임하야 종합적인결과를최종심의하게 되였다한다 그런데 앞으로현지조사가시행될소청사건 八건은 전부가선거무효를 주장한것으로 그리유의대부분은 추천장이 부족하였다는것 과장제로 투표하도록하야 부당한방해를 하였다는것 등이라하는데 피소청인인 국회의원및 소청인의 씨명은다음과같다(括弧內는訴請人)

△金載學(統營)(徐相浩) △申性均(金州)(李西康) △李文源(益山)(金大熙) △宋鳳河(海南)(尹泳善) △朴海克(密陽)(崔成雄) △兪鎭洪(論山)(韓長鎬) △許政(釜山)(金局泰) △李恒發(榮山浦)(朴霞珍)

八·二五總選에對備
首都管下에非常警戒

오는廿五일 실시되는북조선총선거에대비하야 수도관구관하 각경찰서에서는廿三일상오九시부터 비상경계를 실시하고있는데 이번경계는 一반의미심안정을기하기위하야 무장경비는가급적표면화하지않고 주로사복경관대를 동원하야 내부사찰에 주력을두고 만일의사태를미연에방지하고저 노력중에있다한다

朱丙瞰氏水害義金

시내신대한상사주식회사(新大韓商事)지배인 주병돈(朱丙瞰)씨는 작二十일본사에 수해의연금二만원을기탁하였다

노래동무회에서 孤兒院巡訪演奏

「노래동무」회에서는 많은노래선물을지니고 各處의 孤兒院을 訪訪하여 慰勞演奏를하기로되었는데 오는二十六日에는 保健厚生部招請으로 泰陵國立孤兒院을訪問하리라하며 이를希望하는孤兒院은 서울鍾路의 聯絡을 永保會館안「兒童」으로 通知해주기바란다는데 一行은다음과같다

尹石重 尹克榮 鄭寅燮 金泳 노래동무合唱團

全南地下選擧 發砲死亡1名

북조선 선거를앞두고 전남도내각처에서도 지하선거운동이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동선거운동관계로 지난七월중순부터 현재까지百여명이 피검되여취조

自稱陸軍中將에 三年懲役을言渡

전과九범으로 자칭육군중장이라는 사기상습범김동진(金東鎭)은 문서변조 공관에서 검사로부터 三년의구형을받었던바 二十一일개정된 언도공판에서 홍재화(洪載和)판사는검사구형대로 三년징역을언도하야 다시 三년철창생활을하게되여 전과十범의딱지가붙었다고한다

京電營業所資金 百五十萬圓橫領

경전영업부부업무과 영업소회계원최광순(崔光順=二八)은 재작년十월부터 금년八월까지 十五회에걸처백十五만원이라는 영업소자금을 횡령한혐의로 지난十九일수도청에검거되였다한다

梨花文學會에서 「女流文學」發行

市內梨花女子中學校文藝部에서는 지난번「東朔女性文學講座」를 開催하여 文化에굶주린 이땅女性들의 啓蒙에 多大한成果를거두었거니와 이번에는 同講座生들의協助로 다시 梨花文學會를組織하고 今封建的전통속에서 허덕이고있는 새女性文化를樹立하기爲하여 同人誌「女流文學」을發行하기로되였다는데 同會의部署는다음과같다

△書記長洪允淑 △總務部金惠貞外三名 △出版部白仁淑外三名 △事業部金秀英外三名

美軍物資를僞造 三百五十萬圓詐取

미군제二十四군정보원 최철호(崔喆豪)(二七)는미군 보병대『엘·보간더쓰』가발행한 미군물자불하증을위조하야 중부로(忠武路一가二八)대원기업사(大遠企業社)사장심상준(沈相俊)에게 물품을사준다는 약조로지난八월二十일 충무로입구신세계다방에서 현금三백五十만원을 사취하였다는혐의로방금중부경찰서에체포되여문초를받고있다

南崗未亡人別世

남강(南崗)이승훈(李昇薰)선생의미망인 장선택(張善澤)여사는 숙환으로 서울시립병원에입원치료중이든바 지난二十一일 하오八시별세하였는데 영결식은 오산동창회와정주군민회주최로 시립병원광장에서 二十四일하오二시에거행한다고한다

獲面의親日群像
「高文」은反族의登龍門
經驗이란倭놈의神道體得뿐 (2)

국민이 반민족 부자숙청을웨치는 이유에는 단지민족의정기에거슬린 의분에서만이아니다 실제 효용론(實用論)에있어서도 그들을애끼려는입부어리석은종이말하는바「우수한경험자」라니도 대체그경험이란오날한푼어치값이나되느냐는것이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했든가 우리의정부가섰다는 오늘에있어서도 「전체」하고날뛰는 일제때의일부경찰관이나 헌병 밀정따위 왜놈압잡이들이 얼마나자기의겨레를꼴리고 피땀을빠는데만 절실한경험을했든가의 죄악자는우리가 지금다시 추억해보기조차 몸서리치는바이다 다만요새 행정부문고관의 물망에 오르고있는「고등관」때들을 예로 드러보자

……◇……◇……

그들은 대개민족반역자 가운데에도 그들의인생의등룡문인 고문(高文)에 파쓰한왜놈의관리종을이다 서몇년 동안의 놈들의 관료적인분위기속에서 자라나는자이에 그들이첫재자각하는것은「왜놈이되야겠다」는것이였다 그리해야 「고등관」이되고조선사람으로서 가장세도를쓸수있엇기때문이다 미신에가까운신도(神道)는그들의 성경이였고일시동인(一視同仁)이니 내선일체(內鮮一體)니 하는 관의전부가 안일수없었다 이것이 그들의기초훈련이였다 이옥고고등관에임명되여대수럽지않은군장(郡長)의 의자에앉는다 그는한책임자로서 어떤 행정초처의 기안을세워야 하되 다만왜놈상전이 지시하는 식민정책을 그대로실천하는범위에한하였다 좀머나아가서 왜놈들을보다도 적극적인안을세워서 회의에제출할때 그는상전으로부터 공치사를받엇고 본인역시 옷줄해서 고등관진급을한갓꿈꾼다 신이나서 그는 매일아츰 신사참배를하고 사택실정에「가미다나」를 모시고 가정에서국어를말살하였다

이리하여「에라이」라는 정평을차지하자 왜놈연해지고 교만이 잔뜩들었다 아직세파란자가 거리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왜놈을 맞나면 거이 본능적으로 아양을떨지만 겨레에대해서는 웃사람도없이 턱으르대했고 오히려맞납을불쾌히녀겼다 더구나 국어로 말을건너면 남조선사람이아니란듯이 대답도않고 눈살을 찌푸린 형편이였다

—◇—◇—

이러듯이기름써서 왜놈행세를하고 관료만능주의로 교만을부렸던자 악착한왜놈상전은 식민지통치에중요한一기초적수짜며 근본적방책의기밀자료는 일체알려주지않었다 다만수박것만핥렸다 그들의시야가넓을리없었고 이러다한 경륜하나 갖어볼기회가없었든것이다 가자 포부와기획을갖었다해도 어떠케해야물심양면으로 조국을왜놈에게파느냐의재언이였고「조국을위한」경륜이란 어림도없는것이였다 이러한반민족적이요 보잘것없는역량이 관군정하에서 「우수한경험」을치렀다는 일부고관에게서도 차즐수있다는것이다 그들의소위경험이란 왜정의 식민정책을공식적으로수행하는 버릇이골수에저저있다는것뿐이다

戰歿萬二千名
太平洋戰에犧牲된우리同胞

조선민족해양청년단에서는 일직이문허저가든일제의단말마적 최후발악으로 다수의이땅청소년들이 해군군인 군속등에징발되여 태평양전쟁터에끌이여다니다가 불행히조국의해방도 보지못한채 존귀한희생을 당한 고동지들의전몰(戰歿)상황과 인원을조사하고저 수차에걸처일본복원국(復員局)에조사를의뢰하였든바 드디여지난八월廿일동조사서가 과도정부외무처를통하여동단에전달되였다는데 그내용인즉태평양전쟁발발이후로부터금년七월一일까지에 조사된것으로서 해군군인군속의전몰자 총계는 자그만치一만一천八백五十八명에달하며 전몰지별을보면「바ー시」해협「소로몬」군도「뉴지란드」「도락크」도(島)「뉴ー기니아」등이고 그들대개는 전사라고하며 전병사도 상당한수에달한다고한다 이에동단에서는해방후금일까지귀환치않은 고생사를모르고있는 유가족은 문의하여주기를 바라고있으며 한편 九월중순경에는합동위령제를 거행하고저 준비중이라한다

痴情의殺人劇
首都廳刑事가三人을殺害

수도청형사의전율할 살인극一막—수도청 수사과형사한치대(韓治大=二五)는 자기가사랑하는김학근(金學根=一九)이란 여자가 자기를무시하고딴남자와 약혼을하였다하여 二十二일 새벽三시경 인천부 부평동(仁川府富平洞)六백六十번지에 있는 전기 김학근의집으로달려가 소지하였든 권총으로 김을쏘아죽이는한편 김의모친 이씨(李氏四五)와 그의동생인 해성(海星)중학二년생김달근(金達根=一六)에게까지 권총을발사하여 사망케한후도주하였는데 제一관구경찰청에서는 방금비상경계망을펴고 범인을엄탐중에있다(仁川朝通)

포도당注射藥 製造禁止코押收

포도당주사약「후루헤신」(금강(金剛)제약소제조)을맞은환자二명이 사망하였다는바 이에대하야 방금시당국에서 사망한환자에대하야 그원인을조사중이라고하며 한편제조소인 금강제약소에 동약품의제조금지를 시키는동시에 二十三일현재까지 시내각약방을 조사하야 「후루헤신」三천五백앰풀(二十C·C)을 압수하였다고하는데 사망한 환자二명의 죽은원인조사의 결과 과연「후루헤신」의 독소로치사된것인지 않인지가판명될것이라한다

團体動靜

▼大韓勞總 原州郡聯盟主催와 原州新聞協會後援으로 廿四日부터一週日間 政府樹立祝賀記念農業과씨름大會를開催

日氣豫報

豫報=北東風이불고대체로맑겠다

◎江 景◎ 祝政府樹立

江景專賣署 署長 蔡春榮 外職員一同

江景酒造組合 理事長 權泰亨 外職員一同

益山郡望城面事務所 面長 權炳善 外職員一同

江景公立商業中學校 職員一同

江景公立女子中學校 職員一同

朝鮮米倉會社 江景營業所 職員一同

忠南漁聯江景出張所 所長 姜炯權

南鮮電氣株式會社 江景營業所 所長 宋鍾烈

江景金融組合 理事 孔鍾和 外職員一同

江景東興洞精米業 主 金學鉉

物價行政廳江景支廳 支廳長 鄭金聖 後援會長 寬浩鎬

江景土地行政署 區署長 鄭承洛 外職員一同

江景邑事務所 邑長 韓綜洙 外職員一同

城東面事務所 面長 徐基喆

朝鮮生活品營團 江景第二工場 工場長 鄭一度 外職員一同

朝鮮生活品營團 職員一同

江景第一公立國民學校 校長 沈載甲 外職員一同

江景第二公立國民學校 職員一同

江景第三公立國民學校 校長 金希植 外職員一同

城東公立國民學校 校長 申思徹 外職員一同

朝興銀行江景支店 支店長 王一鉉 外職員一同

江景郵便局 局長 李相秦 外職員一同

運輸株式會社 江景出張所 所長 朴來

江景漁業組合 理事 印珏洙

江景繁榮會 會長 金公平

朝鮮商工株式會社 社長 鄭寬浩

求豚毛(猪毛)
原毛、毛粽、長猪毛
毛品等時勢로問議하시요 即時通知함
서울市鍾路五街(第一劇場옆)
朝鮮整毛工廠營業所
電話東局(5)一五八〇番

化粧品部
大昌洋行
서울市忠武路四街三三番地
電話本局(2)二四八六番

婦人冷病(속아리)
神經衰弱(藥)
神奇하게낫습니다
서울鍾路東子洞三五
天池藥房

梅毒 神快藥 옥도丸
皮膚病(텔파스)
及痳疾、痔疾、連珠
코病藥
서울市中區三角洞十一의二
濟蒼局

코마-章徽
原型美術工業社
서울市中区乙支路4街33 電話8668

劇會 리어벙 劇團
(世界的으로最初인)
第二回新作
大悲活劇大公演
쓸아린世上 全4幕6場
企劃 許一影
原作演出 鄭東變
解說者 鄭興變
24日부터
朝鮮劇場

救急胃腸藥
活命水
同和
서울市西大門區冷和洞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電光(3)二七一九·四八一

故南崗李昇薰先生未亡人張善澤女史以宿患市立病院入院加療中八月二十一日午後八時別世玆以告訃

永訣式場 서울乙支路六街市立病院廣場
時日 檀紀四二八一年八月二十四日(火)午後二時
葬地 彌阿里共同墓地

喪主 李宅魯 李昌鍊
護喪 金昌熙 朱社錫 金基鎔 余起鴻 金炳泰 鮮于壎
主禮牧師 金良善

補缺生募集
京畿公立工業中學校
募集科別 機械科 土木科 建築科
募集人員 第一部 三、四、五年 各若干名 第二部 一、二年 各若干名
出願期日 自八月二十五日至九月四日
試驗期日 九月五日부터三日間
出願用紙請求時는試驗經費百圓을先納할것
서울市麻浦區阿峴洞二八三

서울通信大學
서울市乙支路二街

中學講義錄 生徒募集
◎上級學校에進學하지못한것을 恨嘆치말고 집에서本義錄으로工夫하여中學課程을突破합시다
◎入學案內書進呈=要十圓郵票同封 入學案內書請求時는此新聞名을記入하여주시요
서울市中區太平路二街三九一(首都廳越便)
(電話本局(2)六三七)

高麗中學生徒募集
一、募集人員 第一學年晝夜各七〇名 第二學年晝夜補缺生若干名
一、出願期日 八月二十七日까지
一、其他詳細來問
願書期請求時에試驗經費로百圓先納할것